

신년사

불교계가 일어서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인위적인 마디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마디마디를 회망으로 장식하고 싶어한다.

올해는 새해 새 아침, 불기 2539년, 서기 1995년도 그러한 희망 속에서 밝았다. 더욱이 지난 해가 막동갑갑기에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크다.

희망이 큰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고 교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과제는 태산같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새 불경·새 교구와 관련된 것들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새 불경이란 한반도 주변정세의 격변, 세계화의 추진, 그리고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해방 50년이 된 올해의 한반도 정세는 통일지향의 우리 의지와는 달리 「어깨 넘어 흥정」으로 치달을 공산이 짙다. 그런 흥정은 분명코 민족의 이익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긴장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또 새로운 무역체제의 등장과 세계화 선언은 경제뿐 아니라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 밖으로부터 향소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도 될 수도 있다.

한편 정보산업분야의 눈부신 변화도 산업체제는 물론 기존의 생활질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국민정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분명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해는 일련의 변화가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우리 모두 「나의 문제」로 경험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변화란 곧 우주인류의 속성일진대 우리는 다만 새물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시대적 요구로 적극 수용해 그러한 변화가 잠자선 순환(善循環)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물론 지당한 얘기겠지만 현실 여건은 새해 아침의 희망과는 달리 사태악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세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진지하지 못하고 또한 합의된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그토록 지긋지긋한 사건·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봉에 그쳤을 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국가적으로나 뼈를 깎는 참회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 까닭에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사건사고의 집중현상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제환경 변화를 조망할 때 외교·안보면에서 의외적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흡수처럼 밀어닥칠 서양의 저급(低級)대중문화는 과소비 만연, 성적 문란, 청소년 범죄 등 갖가지 타락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응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해져야 한다. 아니, 진지한 정도가 아니라 향후 반세기에 걸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활(死活)의 분수령을 넘는다는 각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교계가 음부의 역할을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불교는 과거 역사속에서 민족성성의 담보였으며 현실속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포용하는 최대의 종교이고, 미래를 향해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불교가 그러한 몫을 능히 감당할 만능기라는 현실진단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만 역사적 당위 앞에서라면 현실은 극복의 대상이지 자조적인 안주처일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한해 조계종을 필두로 개혁의 진풍을 이겨내고 면모를 일신한 불교가 아니던가.

그러기에 우리는 올해는 새해에 우리 불교계가 분명히 떨치고 일어서서 불교중흥은 물론, 국운 개혁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그 점을 역사의 당위로서 못박아 두고자 한다.

물론 현대불교신문도 사시(社是)인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걸맞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중흥에 일조할 것임을 다짐한다. 해방 50년인 올해는 과거 50년, 미래 50년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마음 깨끗하면 온세계가 깨끗

각종단 중정 새해법어

남 위해 몸버리면 진리 얻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면 곧 진리의 몸을 얻습니다. 필경 무슨 도망니까. 하늘에는 落體(낙퇴) 소리요 땅에는 落體(낙퇴) 소리입니다.

끝없이 광둥하고 아름다운 이 법에는 여러의 몸으로 총만 합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무진장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도 무진장함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새 아침 동해에 붉은 해가 떠오르며 만상을 다 삼키고 그 빛이 서로 비치고 있습니다.

문득 산승이 佛天(불천)에 세배하고 친촌민락을 바라보니 사해형제가 서로 도와 청연을 베풀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흥을시고 율해는 앞을 봐도 대로요 뒤를 봐도 대로입니다.

불발 달밤에 한 개구리 울음이 온누리에 깨틀어 한 집안을 이루다.

월 하 (조계종 중정)

지혜로우면 세상 어둠 사라져



로 비추네.

어두운 밤 물러가니 붉은 해 솟아오르고 구름 빗긴 하늘에는 맑은 달 출

헤로우면 세상 어둠과 어지러움도 사라진다. 세상 그늘 짙어지고 사람 삶이 사나운 것은 다 인간 심사의 조화라.

사람 마음마다 청안이 되고 맑은 물이 되어 사는 곳마다 연꽃을 피우게 하라.

그러하면 나무의 춤을 보고 石子の 태평가를 들을 수 있으리라.

보 성 (태고종 중정)

불의·죄악의 근원 탐욕을 버리자



남은 마음과 남은 행동을 고쳐야 하겠습니. 무엇보다도 인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할 일이 많지마는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모두가 새 마음의 새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

오늘날의 무질서, 부도덕한 사회가 바르게 되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 바로 서며, 부정과 부조리를 광정하고 범죄와 비행을 추방하여 청정사회를

이룩하는 기초가 바로 상실된 불성 곧 양심의 회복과 인간성 복구에 있는 것 인다.

다음으로 나의 이익에 앞서 남을 위하는 이타심(利他心)과 공공정신으로 생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심을 국민 모두가 지니고 행할 때 모든 암흑은 사라지고 광명사회는 실현될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의식개혁으로 마음의 존귀성을 앞세워 정진과 현실이 일치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

도 용 (천태종 중정)

제 자리 제 직분 충실해야



옛 사람은 옛 사람답게 수범을 나무르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참신한 기풍을 보입시다. 참회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치를 살리는 청량한 정화수입니다. 참회와 화합속에서 새해의 설계를 함께 추진하여 진각종문을 더욱 넓히고, 바깥 세상도 그 힘을 입어 정화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서원과 정진을 나습니.

올해는 서기(瑞氣)에 심신을 맑게 하고 제 자리, 제 직분에 충실하여 화해의 큰 도리를 살려갑시다.

과학 정보가 세계를 지배하고 온갖 물질들이 공통처럼 커져갈수록, 정신정보를 이원(二元)으로 세워야 애써 쌓은 물질의 풍요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연꽃처럼 반기는 마음이 먼저 열려야 기술의 세계화가 제 몫을 다합니다. 모든 분야,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직분과 위치에서 본연의 활동을 하고, 화해의 본래 자리를 활짝 열어, 내 이웃, 우리 동족, 세계 시민이 화합의 웃음을 꽃피는 정토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각 해 (진각종 총인)

인과법 수행으로 재앙막자



지난 해 국가나 국민에 일어난 무수한 재앙은 일찍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의하면 성실히 준비하지 않는데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

신앙에는 정과 사가 구분됨은 물론 이거니와 부처님 말씀대로 진실한 신앙이 있을 때 불법이 천하에 존재할 수 있습니.

올해영신(乙亥迎新)에는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인과법을 성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발원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대자대비 관세를 보살님을 청하여 일심으로 모십시다.

대 천 (관음종 중정)

작은 행이라도 실천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경과 국경이 없어지고 무역의 장벽이 철폐되어 세계는 하나라는 지구촌이 성큼 다가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용기와 주인의식, 관용과 화성, 그리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

우리모두 작은 행이라도 실천이 있어야 병든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여 남의 것을 욕심 내지 말고 육바라질 실천수행을 생활 화합시다.

록 정 (총지종 중령)

전법의 큰 길을 걷자



올해는 도약의 해요 전진의 해요 창조와 혁신의 해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새로운 계획하에 합동하고 노력해서 뚜렷하게 개혁의 보람을 천양해야 하는 값진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동참하고 일로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직 위법망구의 순수한 신념아래 전법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도약의 해요 전진의 해요 창조와 혁신의 해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새로운 계획하에 합동하고 노력해서 뚜렷하게 개혁의 보람을 천양해야 하는 값진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동참하고 일로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직 위법망구의 순수한 신념아래 전법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금 암 (법흥종 중정)

정토구현 이룩되길



일일이 참회하자.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정토구현 이룩되기를.

既造諸惡業 一皆懺悔 迎新攝佛光 俱顯淨土界

온국민은 지난 세월에 지은 잘못을 일일이 참회하자.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정토구현 이룩되기를.

구 암 (법흥종 중정)

1995년 올해(乙亥)년이 밝았다. 돼지띠 해인 올해는 불기로는 2539년이 된다. 우리 역사속의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불교관계 역사를 연대순으로 살펴본다.

□삼국·통일신라시대

- ▲375년 고구려 소수림왕 5년 2월 삼문사(三門寺)를 지어 전진(前秦)에서 와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승려 순도(順道)를 있게 하였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아도(阿道)를 있게 하였다.
- ▲615년 고구려 영양왕 26년 고구려의 승려로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전한 해지(惠慈)가 들어왔다.

□고려시대

- ▲975년 고려 광종 26년 3월19일에 화엄학에 밝았던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이 76세로 서산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입적했다.
- ▲1035년 고려 정종 1년 10월16일 식인도감(式一都監)환주(黃州)등 십주군(十州郡)의 승관인(僧官人)을 회수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년 불교사

우라나라 최초사찰 성문사·이불란사 건립

□조선시대

- ▲1395년 조선 태조 4년 태조는 전조(前祖)의 제왕씨(諸王氏)를 위해 우두산 견암사에 발 150결을 시급하고 매년 2월을 대납시켰다.
- ▲1815년 조선 순조 15년 1월 무격(巫覡), 승니(僧尼)의 도성출입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 ▲1875년 조선 고종 12년 1월26일에는 낙산사 흥련암과 수도산 봉은사에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청호(淸湖) 학밀(學密)이 교양군 특실에서 출생했다. 12월 20일에는 삼각산 해봉암에 머물면서 도홍심(都洪心)의 직을 수행했던 운파익화(雲城益化)가 나이 58세 법랍40세로 입적했다.
- ▲1935년 2월 23일 조선불교청년 총동맹이 제3회 전체대회를 개최했다. 3월13일 제3회 조선불교 전국수좌대회가 개최됐다. 4월9일에는 불교수양회가 결성됐다. 5월25일에는 조선불교문화운동회가 창립됐다. 8월3일에는 월간「불교시보」가 창간됐다. 9월22일부터 24일에는 조선 불교 성국 순례단이 대구에서 <불타의 일대기>를 공연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곳곳에 자비의 빛이...

전통 100년, 도전 100년 1896-1996

환경관리 국내 1위 두산 그룹

'94 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선정

두산그룹은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강토사랑, 지구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4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최다 선정(16개 사업장)된 두산그룹이 이 나라 제일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두산은 예방위주의 철저한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MS)>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망라하는 환경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토사랑, 지구사랑 - 두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현황

두산상사 금산공장 동양맥주 서울공장, 이천공장, 광주공장, 구미공장, 경산공장 두산으로 서울공장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군포공장, 영남공장 두산전자 증평공장 종합식품 이천공장, 부천공장 두산제관 광주공장 오비씨그릴 이천공장 백화 군산공장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1社1山1河川 지키기운동·종가집 철새보호운동·나무 비료주기운동·환경책자 배포운동등 斗山의 환경보호운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